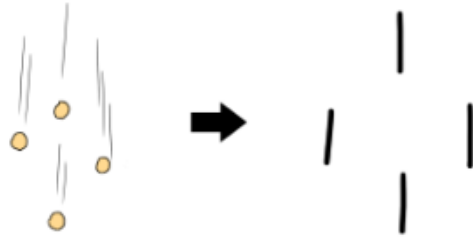


7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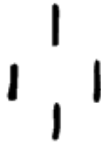
상형문자①



少

적을 소

少자는 '적다'나 '많지 않다', '적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少자는 작은 파편이 튀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小(적을 소)자와 기원이 같다. 다만 小자가 3개의 파편을 그린 것이었다면 少자는 4개의 파편이 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고대에는 파편의 수와는 관계없이 小자와 少자 모두 '작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나 지금의 小자는 '작다'로 少자는 '적다'라는 뜻으로 분리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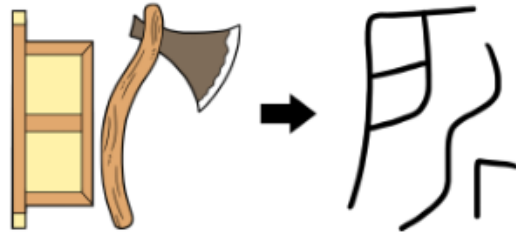
소전



해서

7
-
22

형성문자①



所

바 소

所자는 '곳'이나 '지역', '지위', '위치', '얼마'와 같이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所자는 戶(지게 호)자와 斤(도끼 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所자는 본래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를 뜻했던 글자였다. B.C 470년경의 시가집인 시경(詩經)에는 '벌목소소(伐木所所)'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여기서 所所란 '나무를 찍는 소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所자는 본래 나무를 찍는 소리를 뜻하기 위해 戶자는 발음요소로 斤자는 의미요소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후에 '장소'나 '자리'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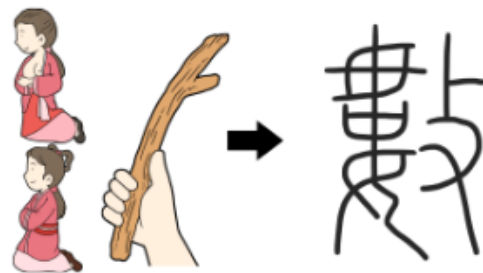
소전



해서

7
-
23

회의문자①



數자는 '세다'나 '계산하다', '헤아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數자는 婁(끝 누)자와 攴(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婁자는 두 여인이 위아래로 포개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한자에서 婁자가 들어간 글자들은 대부분이 樓(다락 루)자처럼 '겹치다'라는 뜻을 전달한다. 이렇게 겹침을 뜻하는 婁자에 攴자가 결합한 것은 숫자 一, 二, 三과 같이 막대기로 셈을 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고대에는 막대기를 겹쳐 셈을 했다. 이를 산가지라 한다. 그러니 數자에 쓰인 攴자는 몽둥이가 아닌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數자를 막대기를 겹쳐 셈을 한다는 의미에서 '세다'라는 뜻을 갖게 된 글자이다.

數

셈 수

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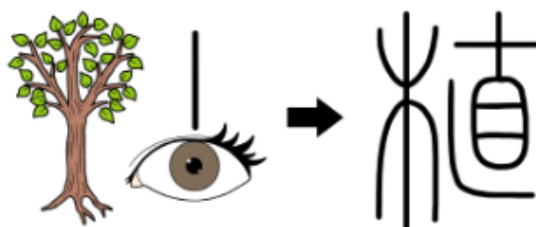
소전

數

해서

7
-
24

회의문자①



植자는 '심다'나 '세우다', '수립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植자는 木(나무 목)자와 直(곧을 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直자는 눈동자에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그려져 '곧다'라는 뜻을 갖게된 글자이다. 이렇게 '곧다'라는 뜻을 가진 直자에 木자를 결합한 植자는 '나무를 곧게 심다'라는 뜻이다.

植

심을 식

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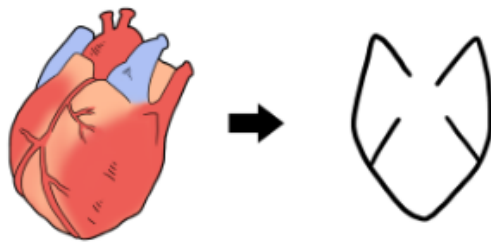
소전

植

해서

7
-
25

상형문자①



心

마음 심

心자는 '마음'이나 '생각', '심장', '중앙'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心자는 사람이나 동물의 심장을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心자를 보면 심장이 𠄎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심장은 신체의 중앙에 있으므로 心자는 '중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옛사람들은 감정과 관련된 기능은 머리가 아닌 심장이 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心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마음이나 감정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참고로 心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위치에 따라 忄이나 㝱자로 바뀌게 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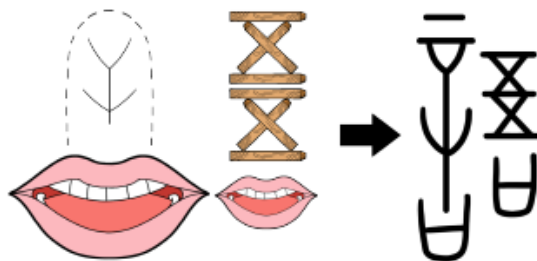
소전



해서

7
-
26

형성문자①



語

말씀 어

語자는 '말씀'이나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語자는 言(말씀 언)자와 訃(나 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訃자는 '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지금은 잘 쓰이지 않지만, 고대 중국에서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다. 이렇게 '나'를 뜻하는 訃자에 言자가 결합한 語자는 '나의 말'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본래의 의도를 명확히 알기 어렵지만, 자신이 하는 말을 뜻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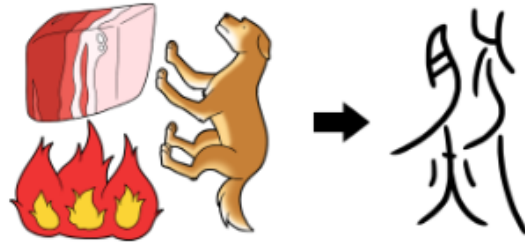
소전



해서

7
-
27

회의문자①



然

그럴 연

然자는 '그러하다'나 '틀림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然자는 犬(개 견)자와 肉(고기 육)자, 火(불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글자의 조합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개고기를 불에 굽고 있는 모습이다. 然자의 본래 의미는 '까맣게 타다'였다. 개는 가족을 벗기지 않고 껍질째 불에 그슬려 익혀 먹는다. 그러면 껍질이 새까맣게 타게 되기 때문에 然자는 '까맣게 타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그러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火자를 더한 燃(그을릴 연)자가 '그을리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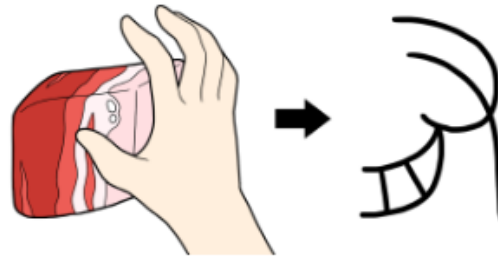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7
-
28

회의문자①



有

있을 유

有자는 '있다', '존재하다',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有자는 又(또 우)자와 月(육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여기에 쓰인 月자는 肉(고기 육)자가 변형된 것이다. 有자의 금문을 보면 마치 손으로 고기를 쥐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내가 고기(肉)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有자는 값비싼 고기를 손에 쥐는 모습으로 그려져 '소유하다', '존재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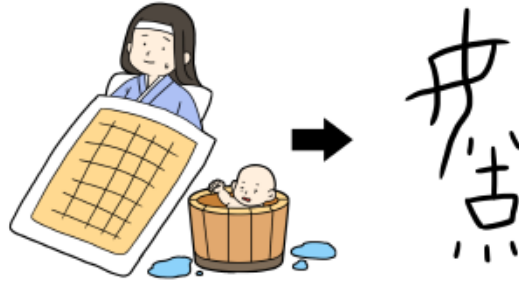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7
-
29

회의문자①



育

기를 육

育자는 '기르다'나 '낳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育자는 子(아들 자)자와 月(육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育자의 갑골문을 보면 女(여자 여)자와 子(아들 자)가 함께 𠂔 그려져 있었다. 여기서 子자는 거꾸로 그려진 채 주변은 물이 튀어있는 모습이었다. 이것은 막 출산을 끝낸 어미와 아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育자는 이렇게 아이를 막 낳은 모습으로 그려졌었지만 소전으로 넘어오면서 어미는 사라지고 子자를 거꾸로 뒤집은 𠂔 것과 肉(月)자가 결합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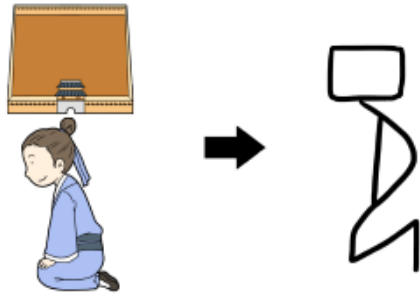
소전

育

해서

7
-
30

회의문자①



邑

고을 읍

邑자는 '고을'이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邑자는 口(에워쌀 위)자와 邑(꼬리 파)자가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邑자를 보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그린 𠂔(병부절)자 위로 口자가 그려져 있었다. 여기서 口자는 '성(城)'이나 '지역'을 표현한 것으로 邑자는 성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邑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성'이나 '도읍'이라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邑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阝자로 바뀌게 되는데, 글자의 우측에 위치할 때만 邑자가 바뀐 것이고 좌측에 있다면 阜(언덕 부)자의 부수이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𠂔

소전

邑

해서